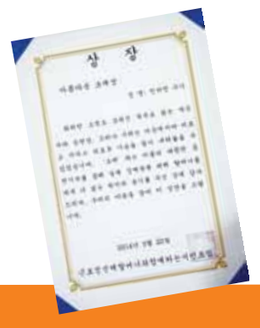

아름다운 초대상
성명 : 인디언 수니
"화려한 조명도 갖춰진 객석도 없는 작은 지하 공연장. 그러나 우리는 이곳에서야 비로소 지치고 외로운 가슴을 잠시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초대'라는 이름의 따듯한 공연 기부를 통해 일제 강제 동원 피해 할머니들에게 더 없는 위안과 용기를 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우리의 마음을 담아 이 상장을 드립니다."
2014년 3월22일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 모임

당신만을 위한 노래 '인디언 수니의 초대'

지역 음악가 인디언 수니·곽우영씨
근로정신대 할머니 등 초청 콘서트

소박한 공연 '인니언 수니의 초대'를 진행하는 인디언 수니.

거창한 프로그램 대신 관객과 편안하게 소통
친구끼리 가족끼리…저희도 위로받고 힘 얻죠
'애수의 소야곡' 등 재해석 앨범 11월 발매

기타리스트 곽우영씨가 운영하는 '폴리폰(Polyphon) 스튜디오'에는 소박한 상장이 놓여 있다. 곽씨는 가수 인디언 수니와 함께 몇개월 전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을 초청, '인디언 수니의 초대'라는 이름의 작은 음악회를 열었었다. 이 상장은 당시 참석했던 이들이 두 사람에게 전해준 마음이다.

'인디언 수니의 초대' 는 20여명 정도 들어가는 공간에서 열리는 진짜 작은 음악회다. '꼬두메' 활동을 같이하며 20여년간 인연을 이어온 두 사람은 지난 2011년부터 김두수, 바닥프로젝트 등과하우스 콘서트를 열어왔었다. 그러다 단체 등에서 공연을 위해 인디언 수니를 초대하는데, 인디언 수니가 직접 사람을 초대해 음악을 들려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사석에서 사춘기 딸과의 소통 문제로 고민하던 지인의 이야기를 들은 그녀는 "그럼 내가 노래를 들려줄 테니 한번 와볼래" 말을 건넸고, 그녀의 초대가 시작됐다.

결혼을 앞둔 커플을 초청해 프로포즈 음악회를 열어주며 '청혼' 등 사랑 노래를 들려줬고 스님들, 성소수자들, 장모와 함께 한 사위와 가족들 등 다양한 이들을 초대했다.

거창하게 프로그램을 짜지는 않는다. 집에서 술 먹다 노래 한 소절 하는 것처럼 분위기 따라 이곡, 저곡을 부른다. 초대된 이들 역시 분위기에 젖어 노래를 하기도 한다. 편안하게 살아가는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절로 마음이 열린다.

"작은 공간에 저희와 그들만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편한 분위가 만들어져요. 맨날 보는 친구, 맨날 만나는 가족들도 색다른 모습을 느끼는 것같아요. 무언가 억지로 분위기를 만들지는 않고 돗자리 깔아드리면 알아서들 잘들 하시죠.(웃음) 쑥스러워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시고 삶이 쉽지 않아 다들 마음 못 열 때 살살 건드려주면 와서 조금씩 풀어놓고 가시더라구요. 영상을 준비하는 이들도 있고, 즉흥적으로 노래를 부르는 사람도 있구요."

가장 마음에 남는 공연은 역시 정신대 할머니 초청 공연이었다. 일본 회사를 상대로 한 소송의 판결을 얼마 앞두지 않을 때였다. 반평생 정신대 할머니들을 위해 애써온 일본인 후원회장의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에 음악회에 초대했다. '봄날은 간다', '백치 아다다' 등 할머니들이 좋아할 만한 노래를 불렀다.

"어떤 공연 현장에서도 맛보지 못한 감동을 느꼈죠. 일본인 회장님께서 '임진강'이라는 노래를 듣고 싶다고 하셔서 재판에 이긴 날 또 한번 초대해 불러드렸어요. 소소한 감동이 얼마나 큰 울림을 주는 지 몸으로 느꼈어요."

인디언 수니는 한번 보면 잊히지 않는다. 인디언들이 늘상 지니는 '피스마크' 목걸이를 언제나 착용하고, '꽃'을 꽂고 다닌다. 봄·여름엔 프리지아, 가을·겨울엔 코스모스다. "지구 생명이 점점 단축되는 데 대한 늘 미안한 마음을 담은 애도의 방식"이라는 설명이다. 그녀의 목소리 역시 인상적이다. 깊은 데서 올라오는 낮은 저음은 깊은 울림이 있다. 우연히 듣게 된 그녀의 '목포의 눈물'과 '조율'은 묘한 느낌으로 오랫동안 기억에 남았다.

대학시절부터 노래했던 그녀는 음악을 접고 다른 공부를 하겠다며 1995년 미국으로 떠나 2년반 머물렀다. 하지만 1999년 삶의 끝까지 노래를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마음은 지금도 변함없다.

그녀는 자작곡 음반과 세계 민요를 담은 '노스탤지어' 등 3장의 음반을 냈다. 현재 11월 발매를 목표로 '애수의 소야곡', '봄날은 간다' 등 옛가요를 인디언 수니 식으로 재해석한 앨범을 곽씨와 함께 준비중이다.

"초대를 할 때 처음에는 누군가에게 뭔가를 베푼다는 생각이었는데 웬걸, 저희가 더 힘을 받아요. 사람들이 살면서 '나만을 위한 공연' 같은 것을 한번 쯤 꿈꾸곤 하는데 이게 쉬운 일은 아니어서 다들 좋아하시는 것같아요."

언젠가, 인디언 수니의 초대장이 날아올지도 모른다. 그녀의 근사한 노래 선물을 기대해 보자.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BMW Z4' 현대미술로 재탄생

스페이스K_광주 카를로스롤론전…10월말까지

'BMW Z4가 화려한 현대미술로 재탄생하다.'

스페이스K_광주는 오는 10월31일까지 미국 시카고를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는 예술가 카를로스롤론(디자인)의 개인전을 연다.

'터널 비전(Tunnel Vision)'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에는 실제 자도창 'BMW Z4'에 작가의 감성을 입힌 설치작품을 비롯해 샹들리에, 바이크, 평면 등이 선보인다.

무명의 그라피티스트로 활동했던 작가는 미국의 주류문화와 다른 문화적 정체성과 고민을 현대미술에 접목시키면서 명성을 얻었고, 제52회 베니스비엔날레에 우크라이나 국가관 대표작가로 참여하기도 했다.

'터널 비전'이라는 이름처럼 작가의 작품들은 좁은 터널을 벗어나는 것만 같은 느낌을 준다. 특히 국내에 한달 동안 체류하면서 제작한 'BMW Z4'는 유려한 외관을 역동적이며 기하학적인 패턴으로 도색해 깊은 인상을 안긴다. 문의 062-370-5948.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日 고베비엔날레 오늘 광주비엔날레 방문

'효고·고베의 날' 맞아

일본 고베비엔날레 관계자들이 광주비엔날레를 방문한다.

15일 광주비엔날레재단에 따르면 '효고·고베의 날'을 맞아 요시다 히로미 고베비엔날레 총괄 프로듀서 등 고베비엔날레 관계자와 고베 언론인 등 12명이 16일 광주비엔날레를 찾는다.

'효고·고베의 날'은 광주비엔날레재단이 광주시와 효고현 고베시 간의 문화 협력을 위해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행사다. 지난해에는 고베비엔날레에서 광주비엔날레재단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의 날' 행사가 열렸다.

방문단은 방문 첫날 2014광주비엔날레를 관람하고 이후 광주시립민속박물관에서 열리는 2014광주비엔날레 기념전 '서·도·꽃 시츠라이'전 개막식에 참석한다. '효고·고베의 날'을 기념해 열리는 이 전시에서는 오는 20일까지 서예와 도자기 작품 등 일본 전통 문화예술이 소개된다.

한편 고베비엔날레는 광주비엔날레를 모델로 지난 2007년 창립, 지난해 4회를 맞았다.

/김경인기자kki@kwangju.co.kr

제시카 모건 광주비엔날레 예술총감독
뉴욕 디아 아트 파운데이션 디렉터 선임

제시카 모건 2014광주비엔날레(9월5일~11월9일) 예술총감독이 미국 뉴욕 맨하탄에 있는 비영리 미술기관인 디아 아트 파운데이션(Dia Art Foundation) 디렉터로 선임됐다.

영국 테이트모던 미술관 큐레이터인 제시카 모건은 테이트모던에서 일하기 전 미국 시카고 현대미술관 어시스턴트 큐레이터와 보스턴 현대미술연구소 수석 큐레이터 등을 역임하면서 기획력을 인정받은 바 있다.

현지에서는 남미와 중동, 아시아 등에 관한 제시카 모건의 개인적인 연구와 관심사가 디렉터십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주목하고 있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